

‘상식’ 쉽고도 어려운 것

정은혜
인턴기자

궁금한 것이 많은 성격은 유리한 점이 많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은 종종 꽤 또렷한 자신만의 주관을 갖게 한다. 나는 질문이 많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삶과 또 세상에 대한 꽤 또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좁은 시각보다 넓었고, 내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건 늘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내 주장의 근거가 필요할 때면 “그건 상식이잖아”라고 참 많이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만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상식이잖아, 하고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각의 강요라고 주장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 아닌가, 어쩌면 상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성(sex)에 대한 개념의 변화였다. 나는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는 집단 속에서 자라왔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여자 아니면 남자였다. 그 외의 분류는 없었으며, 한 번도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2개의 성(sex)으로 구분된다는 데는 고민할거리가 없었으며, 그건 나에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뉴욕 주에는 31개의 젠더

(gender)들이 있다. 처음에는 한 개인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 짓는 말들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저 남자애는 참 명랑해”라고 표현할 때 그 “명랑함”과 같은 특징의 것들이 31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남자거나 여자인 사람인데, 거기에 무언가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처럼. 그러나 뉴욕주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31개의 젠더(gender)의 분류를 보면 Bi-gendered, Cross-dresser, Drag King, Drag Queen, 그리고 여성(Woman), 남성(Man) 기타 등등이다. 즉,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그것들과 동일하게 구분되어지는 또 다른 젠더들이 수십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31개는 최소 분류이며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혼란스럽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2009년 남아공 월드컵 때 한 여성 육상선수가 우승한 뒤 성별 논란이 일어났었다. 남성호르몬을 복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 가운데, 그 선수는 사실 인터섹슈얼(intersexual) 여성으로 알려졌다. 인터섹슈얼이라 함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두 개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는 여성인 경우도 또 남성인 경우도 있다. 혹은 난소를 갖고 있지만 남성의 외부생식기와 가까운 형태이거나, 정소를 갖고 있지만 여성의 외부 생식기와 가까운 형태인 경우도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육체적인 부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XXXY 신드롬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가 있다. 보통 여성은 XX 염색체로, 남성은 XY 염색체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신드롬에 걸린 남성들은(이 신드롬은 남성들에게만 일어난다) 2개의 XX를 더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나의 질문들이 시작되었다. 보통 인터섹슈얼들의 경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여성화 혹은 남성화 수술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가 어떠한 수술도 받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우리는 그들의 성을 무엇이라고 불러야할까. 염색체를 따라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불러야할까, 아니면 스스로가 불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해야 할까. 만약 스스로가 불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제는 여성으로 불리우다 내일은 남성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일까. XXXY 신드롬은 어떨까. 육체는 여성화 혹은 남성화 수술이 가능하지만, 염색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할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이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인 성의 구분이 되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에도 당장 속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생겨난다면, 다만 그들에 대한 이해와 넓은 시각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닐까, 그 해결책이 꼭 극소수의 분류를 위해 양성(sex)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젠더 분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뉴욕주를 비롯한 이러한 젠더(gender) 분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극소수의 선천적 태생적 다름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예를 들면, 31개의 젠더 중 하나인 “Pangender”는 “성정체성이 모든 혹은 많은 젠더 표현들로 이루어진 것(gender identity is comprised of all or many gender expressions)”을 의미한다. “Two spirit”은 “남성 그리고 여성의 속성을 모두 가진, 그들의 집단에서 뚜렷한 성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들을 가진, 그리고 자주 신비한 의식들(주술들)에 연루되는 사람(who have attributes of both men and women, have distinct gender and social roles in their tribes, and are often involved with mystical rituals (shamans))”을 의미한다. 이 뉴욕주의 31개의 분류에는 인터섹슈얼(intersexual)이나 XXXY 신드롬과 같은 단어는 없다.

물론 소수의 국가들이 non-binary(둘중 하나로 구분할 수 없는) 혹은 third gender(제 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법 또한 과거에는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 성 전환(transgender status), 그리고 간성(intersex status)으로 분류하고 이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젠더 분류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걸까. 선천적인 것을 넘어서 개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까지 남성과 여성과 같은 젠더(gender) 분류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젠더(gender)라는 말을 만들고 그들 각각의 그 젠더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일까.

한 발 양보해서 이 질문을 뛰어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소화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자라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다. 그런데 만약, bi-gendered와 female to male인 두 사람이 만나서(아니지, 결혼을 두 사람이 한다는 것도 그동안 내가 상식적이라 생각해왔던 것일 뿐이다) 결혼을(잠깐,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것 또한 내 알팍한 상식일 뿐이다) 하겠다고 한다면?(일단 넘어가보자) 그 두 사람이 각각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꼭 가족구성에 아이가 있어야 하는 걸까? 일단 이것도 넘어가보자)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아닌, 어떤 표현으로 그들의 부모를 불러야 하는 걸까.

우리는 흔히 여성스럽게 혹은 남성스럽게라는 표현을 쓴다. 여성스럽다는 건 어떤 걸까. 남성스럽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러면 agender스럽게 혹은 gender-fluid스럽게라는 표현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다, 아니면 아예 성(sex)이나 젠더(gender)라는 말조차 필요 없는 건 아닐까? 인간을 꼭 구분 지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떠한 집단화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생물1, 생물2, 혹은 생물3 쯤으로 그 모든 개념자체가 와해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 개념자체가 와해된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더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떠한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그저 생물들이 살아가는 아무 것도 아닌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중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생각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과 복합적인 작용들, 그리고 연쇄적인 반응들이 넘쳐난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밤이다.

